

50% 이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신다

인간의 마음이 마귀

매 시간 늘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됩니다. 시간 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눈을 감아도 주님이 바라봐지고, 눈을 떠도 주님이 바라봐지며, 누구를 쳐다봐도 주님이 바라봐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품어야 죄가 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인간의 마음, 내 마음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성경이나 불경에서 “나를 항상 버려라.”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버려라는 말은 내 마음을 버려라는 것이요, 내 마음을 없애버려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불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경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를 이기는 하나님이라야 구원이 있는 거지, 나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신은 있는데 왜 죽느냐 하면 마귀한테 하나님이 지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귀를 이겨야만 안 죽고, 마귀를 이겨야만 영생을 얻고, 마귀를 이겨야만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이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랑관세를 이기는 구세주 하나님이라야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구원인 것이지, 구세주 하나님이 아닌 보통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백성도 아니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세상 종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기는 것이 자유율법

매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일 초 일 초 온전히 나의 마음과 몸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생활을 하게 되면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고로 나라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항상 나를 버려라.”라는 말씀에 응하게 되는 것

입니다. 불경에는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항상 버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소린 것입니다. 가르쳐주려면 이렇게 똑똑하게 가르쳐줘야지, 이걸 뭐 자기도 모르면서 뭘 아는 척하고 잘못 가르쳐주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초 초로 주님을 바라봐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유율법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주님을 고도로 사모하는 것이요,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기는 것이 자유율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것은 가령 하나님이 나무라면 하나의 나뭇가지가 하나님 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비결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이 맡기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지도 않고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자주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온전히 맡기는 생활을 해보고, 초 초로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많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갖지 말라

초 초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소리는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므로 결국 내 마음을 갖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갖지 말고,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만을 위한 생각,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내 마음을 이기면 늙지도 죽지도 않아

그런고로 내 생각을, 자주 우리나라는 내 마음을 여지없이 죽여버리고 자위버리면, 바로 나를 이기는 것이요, 마귀를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이기면 절대로 늙으려야 늙을 수 없고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거든 하면 절대로 죽지도 않고, 절대로 늙지도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자위버리는 생활을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이긴자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태초의 하나님보다 힘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창조력이 한도 없이 높은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어야 구원이니, 구세주가 안 되면 구원이 없고, 구세주라야 바로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은 바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랑관세를 이기는 영, 성령으로 거듭난 영, 무량대수 마귀를 여지없이 부셔버리고 죽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영이라야 그래야 바로 구세주의 영이 되면서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이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구세주 하나님이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보통 하나님은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은 마귀한테 만날 지는 것입니다. 사랑관세를 킌 마귀한테 지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죽어서 죽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신에게 죽임을

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되어가지고는 구원이 없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랑관세를 이기는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을 누리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보통 하나님이요 이기신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이기신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나를 이겨야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세상 생각을 하려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일로 영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전제를 다 기울이니까 생각이 난다고 해야 할까? 하늘나라 생각만 하고, 영생밖에 생각이 안 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생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지금 백만제단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차원 높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이면 다 보통 하나님이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랑관세를 이기는 그러한 구세주 하나님, 완성의 이긴자 하나님이라야 구원이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자기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천국을 향해서 가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루 하루 자기를 이겨야, 내 마음을 이겨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요, 영생의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못 이겨가지고는 한참 멀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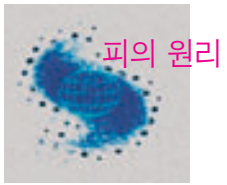
50% 이기면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

그런고로 내 가족을 생각하려고 할 수가 없고 내 과거가 생각이 내려야 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천국을 향해서 간다가 되는 것이요, 구원의 자격을 얻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 생각이 빙빙 돌

아가는 사람은 십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십 년 동안 하나님에게 충성을 기울여야 그래야 의심도 안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일요일만 되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몽땅 헌금대에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옛날 돈 백 만원, 오백 만원, 천 만 원을 집어넣었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큰 금액을 헌금대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헌금을 그렇게 계속해서 하니가 굉장한 돈을 헌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투자한 곳에 마음이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밀전을 하늘나라에 쌓아 두게 되니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고, 항상 하늘나라만 생각이 되고, 세상 생각을 하려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일로 영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전제를 다 기울이니까 생각이 난다고 해야 할까? 하늘나라 생각만 하고, 영생밖에 생각이 안 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생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온 정성을 기울여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그래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격은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자신과 더불어 투쟁을 해서 자신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10% 이기는 생활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20% 이기는 생활, 그 다음에는 30% 이기는 생활, 이렇게 자주 그 이기는 생활의 프로테스가 점점 늘어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 50% 이상 이기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뒤에서 크게 밀어 주시고 미끄럼틀 타고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리막을 내려가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0% 이루어지기까지가 힘든 것입니다.*

1991년 9월 19일 말씀 중에서 말씀 정리: 원현욱 기자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해부 ③ 인간의 의식 차원3(피의 스펙트럼)

정·기·신의 관계와 피의 변화

사람의 차원을 크게 나누어서 정혈적 성격을 많이 띤 사람은 정혈인이고, 기혈적 성격을 많이 띤 사람은 기혈인, 그 다음은 신혈인이라 할 수 있다. 저차원의 정혈인에서 고차원인 초혈인으로 올라갈수록 사람의 생명력, 의식수준, 자기절제 발현능력은 더욱 상승된다. 고차원의 존재가 많다면 그만큼 사회와 문화, 모든 면에서 화통하며 삶의 질이 우수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현재 인간의 의식 차원에서 볼 때, 어느 혈의 위치에 놓여 있을까? 2017년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불의한 거대 권력 앞에 민중의 촛불 저항의식’은 실로 세계가 놀랄 만한 수준 높은 저항 예술문화, 무폭력과 질서정신을 보여 주어 신혈적 차원의 광복할 위치에 올라 있다고 감히 평가해 본다. 힘과 폭력과 전쟁으로 의사를 관철하는 차원은 아주 저차원의 정혈적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왜 우리가 인간의 의식 차원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인간의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는지를 사회현상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비취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온갖 방면에서 노력해 왔다. 동양의 선도(仙道)는 인간의 고풍격과 불로불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선도의 대표

적 수행과정의 핵심을 압축해 논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정화기(練精化氣)로 정(精)을 단련하여 기(氣)로 바꾸고 몸속에 돌게 하는 단계다. 둘째, 기를 단련하여 신(神)을 만드는 단계다. 셋째, 신을 단련하여 근원적인 허(虛)로 돌아가는 단계다.

이와 같은 과정, 즉 정(精)을 단련하여 기(氣)로 화하게 하고, 기를 단련하여 신으로 화하게 하는 과정은 세상 사는 이치와 반대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세상의 이치란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사망의 조류를 말한다. 사망의 조류를 따르는 삶이란 늙고 병들어 죽는 원인을 모른 채 그것을 운명이라 여기고 순응하는 삶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남자는 정(精)을 누출하고, 여자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아이를 낳아주며 쇠병사장(衰病死葬)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순리(順理)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도의 수행과정은 이러한 사망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역리(逆理)를 행하는 것이다. 정(精)을 쌓고 쌓아 불로불사체(不老不死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의 최대 불행인 쇠병사장의 운명을 극복하고자 산으로 들로 득도(得道)를 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것처럼 수도를 행해 왔던 것이다.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역리를 행하는 것은 그의 잠재된 가능성을 완전히 발현



시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해탈하고자 신선이 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마치 진흙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지만, 그것을 빚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그러한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역리를 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기인행각(奇人行跡)으로 비치기 쉽고, 자신의 내적으로는 의롭고 힘난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수반되는 길이다. 등용문(登龍門)과 같이 수많은 세월을 인내하여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정(精)을 기(氣)로 만든다는 것은 저에너지를 고에너지로 저차원을 고차원의 생명체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본질이 원래 저차원의 존재라면 고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다행하게도 고차원의 존재였음을 여러 가지 정황과 인간의 능력 차원에서 확인된다. 인간의 지나온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봐도 과거보다 현재가 현저히 모든 면에서 발달해왔다는 것이 그 산 증거다. 인간이란 존재가 과거 어느 시점에 저차원의 존재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류의 정신문화적 유산인 종교와 신화, 그리고 학문적 소산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분석한 바 있다.

여하튼 한 번 저차원으로 떨어진 존재가 다시 고차원의 존재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이 원래 높고 높은 존재였으므로 그것을 자각하고 재도전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인간의 내부에 잠재된 무궁한 능력을 우리 인간

능력이 그것을 상당 부분을 알아차리고 있어 다행한 일이다. ‘참나 찾기’ ‘인간이란 무엇인가’ 등등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진지하게 되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인간의 본성을 바로 알고 그 본성에 따른 참 삶을 살기 위한 자성(自省)의 노력이다. 한평생 태어나서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삶이란 한갓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잠시 맺혔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생의 종지부를 찍고 마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을 바로 알게 될 때, 높고 높은 신적 존재가 낮고 낮은 동물적 인간의 위치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여 고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피의 원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저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인간이 정혈에서 기혈로 기혈에서 신혈로 신혈에서 초혈로의 과정, 즉 고차원적인 에너지체로의 변환이다. 인간의 고차원에서의 몸과 마음의 변화는 정혈의 바탕을 근거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 정혈이 썩어 혈기가 노쇠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 무지한 종교에서 정혈(육체)은 죽고 신혈(영혼) 혹은 초혈이 몸에서 빠져나와 다른 높은 차원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산다는 논리는 인간 최대의 사기극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각성과 변화,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의 질적 양적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 즉 신과 같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며 지극히 아름다운 세계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김주호 승사